

복합영화관 대기공간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 대기공간내 관람객의 분포현황과 경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Waiting Areas in Multiplex Cinema

- Focused on Audience distribution and their routes within Waiting Areas -

우은영* / Woo, Eun-Young

최준혁** / Choi, Jun-Hyuck

임채진*** / Lim, Che-Zinn

Abstract

Major companies have launched into the film industry since 1990s, which resulted in competition in facilities. In addition, restriction for the number of the prints was remo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inema has been transformed and developed from the established one-hall cinema into multiplex cinema with large-scaled halls. Contrary to the established cinema, modern cinema are a cultural place within easy access. They accommodate diverse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their functions have been extending gradually. The waiting areas should not function only as the waiting space for the audience but also the places to attract the audience and provide them with various cultural and art information, and temporary restful break. For this stud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area and the audience are identified objectively by analyzing audience distribution and their routes within the a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design of the waiting area based on the findings above.

키워드 : 복합영화관, 대기공간, 관객분포, 경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영화관¹⁾은 1960년대 영화산업의 성장으로 지금 현존하는 영화관의 반 이상이 건축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경제성장의 결과 소득이 증가되어 스포츠, 레저, TV 보급으로 영화관의 시장 규모가 위축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변화하는 사회에 반응하여 복합영화관이 등장하면서 관객의 다양해진 욕구충족을 위하여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고도경제 성장과 발맞춰 영화관 시설이 고급화·현대화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지닌 레저, 오락시설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들의 영화산업진출에 따른 시설경쟁과 프린트 별 수²⁾ 제한 폐지로 인하여 기존의 단일관 형식의 영화관에서 대규모의

상영관을 갖는 복합영화관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 영화관은 달리 현대의 영화관은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기능 또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시설환경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주로 영화관의 외형, 상영관의 좌석·음향·설비 시설 부문에 투자를 하게되고 아직까지는 대기공간에 대한 시설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공간은 더 이상 관객의 대기행위만 요구되는 공간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객을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정보와 도심에서의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복합영화관 대기공간의 관객 분포와 경로분석을 통하여 대기공간의 구성과 관객과의 상호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봄으로써 영화관 대기공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디자인에 관한

* 정희원, (주)뮤제씨엠 전시운영 팀장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이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디자인학 박사

1) 우리나라에서는 극장(theater)과 영화관(cinema or movie theater)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장이 공연을 위한 무대와 준비공간이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90년대 이후에 개관한 13개 복합 영화관의 대기공간현황과 동선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기초자료로 하여 이들 중에서 서울 관객 인기도 순위³⁾가 높고 2개 이상의 상영관이 하나의 대기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평 MMC, CGV 강변 11, 메가박스 씨네플렉스의 대기공간⁴⁾으로 선정하였으며 2001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현장 방문하여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간대는 평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상주하면서 관객의 분포와 경로를 파악하였다. 동시 입장객이 다수인 경우는 1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영화관에 입장하여 티켓팅 후 상영관에 입장할 때까지 관람객들의 동선과 시간대별 관람객 분포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영화관

	연면적 (㎡)	대기공간면적 (㎡)	상영관수 (개관)	수용인원 (상영관 좌석수)
거평 MMC	3,960	615.2	10	1800 석
대기공간의 특징	10개의 상영관에 하나의 대기공간을 공유한 형태. 상영관 자체의 입장과 퇴장 동선을 분리되어 있고 대기공간 내에 커피숍과 게임 룸이 설치되어 있다.			
CGV 강변 11	5,752	342.6	11	1926 석
대기공간의 특징	대기공간 내 매표소와 concession이 밀렬로 배치되어 있고 커피숍과 게임 룸이 있으며 입장객과 퇴장객의 동선 구분이 명확치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17,954	3,216.5	16	4335 석
대기공간의 특징	대기공간이 각 상영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장시 대기공간으로의 재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선체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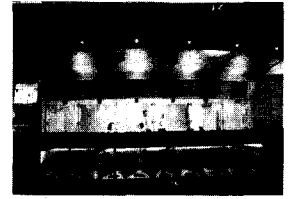
2. 복합영화관 대기공간의 역할과 기본요소

1990년대 이후 개관한 복합영화관⁵⁾의 대기공간은 기본적으로 상영관 앞의 대기공간과 concession, 티켓팅 공간,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게임시설, 인터넷 시설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기공간은 각 상영관에 별도의 대기공간이 있는 경우와 여러 개의 상영관이 하나의 대기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 크게 대별되었다. 대기공간은 단순한

대기기능 이외에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고 도심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그 개념과 기능이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

(1) 매표소

매표소는 영화 티켓을 팔고 사는 곳으로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제목과 시간, 예매상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관의 대부분, 특히 수평형 영화관인 경우 건물의 외부에서 매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매표소는 캐노피가 없어서 우천시 관객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영화관 앞 보도에 대기 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최근 대기공간에 매표소를 공유하는 영화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에는 거평 MMC, CGV 강변 11,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등이 있다. 무인티켓박스를 구축한 영화관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1> CGV강변매표소

(2) concession(구내매점)⁶⁾

영화관 수익의 30%가 concession에서 얻어지며⁷⁾ 이는 관객 이용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개의 상영관에 대기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 시설로 인하여 대기공간의 혼잡을 유도하므로 배치 계획시 고려해야 한다.



<사진 2> 거평MMC 구내매점

(3) 티켓팅

티켓팅이란 관객이 구입한 영화표를 관리자에 의하여 수표를 하는 행위이다. 티켓팅의 위치에 따라 대기공간을 이용하는 범위가 다르다. 대기공간 입구에서 티켓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표를 구입해야 대기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관객이 대기공간 이용시 제한적이 된다. 상영관 앞에서 티켓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표를 구입하지 않아도 대기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간의 활용뿐 아니라 관리자의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관객의 자율적인 동선이 형성된다.

(4) 정보전달

최근 영화관에서는 정보전달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영화관련 팸플렛은 관객들의 이용이 용이하게 여러 곳에 배치해 놓고 있고 멀티비전을 통하여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홍보를 하고 있다.

6)concession은 기존 연구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본 연구에서도 concession으로 표현할 것이다.

7)남동철, 특집 긴급점검! 극장, 씨네 21, 한겨레신문사, 1996. 8.

반면에 영화관은 스크린이 있는 점에서 그 개념이 다르다.

2)전국적으로 동시에 개봉할 수 있는 영화편수.

(1994년 이전까지는 전국적으로 14벌로 제한되어 있었다.)

3)http://dir.daum.net/Regional/Seoul/Companies/Theaters(2001.2.1 기준)

4)대기공간은 영화 상영시간까지의 대기장소, 티켓팅을 위한 매표소, concession, 화장실 등의 기능을 수용하며 단순히 기다림의 장소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객을 유도하고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5)1990년대 이후 복합영화관 중에는 명보프라자, 키네마, 키노, 씨네플렉스, 씨네코아, 씨티극장, 씨네월드, 주공공이, CGV 강변 11, 거평 MMC,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센트럴 6 시네마 등이 있다.

(5) 화장실

화장실의 변화는 위치의 자유로움과 분산화란 점이다. 최근 영화관에서는 대기공간의 두 세 곳에 배치하고 그 시설도 많이 고급화·현대화 되어가고 있다. 관객의 행태를 고려하여 영화관 계획 시 퇴장영역이 분리된 영화관은 퇴장영역에 화장실을 배치하면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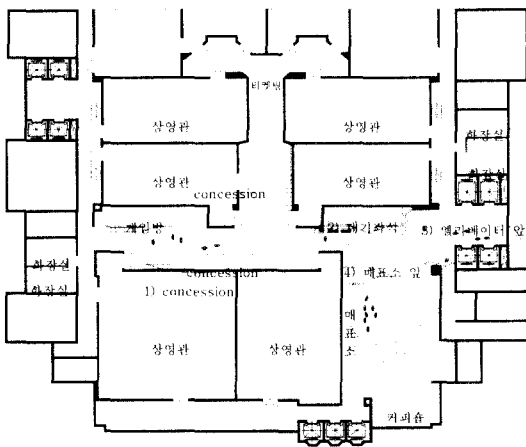
3. 대기공간 내의 관객분포

3.1. 거평 MMC 관객분포

거평 MMC 대기공간의 관객 혼잡도는 주말과 평일을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오전과 오후의 관람객 수에는 차이가 있으며 혼잡함은 각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오전 12시 30분 경부터 관객들 여러 명이 한번에 입장하기 시작하고 1시 30분 이후로 관객들이 점점 증가하여 오후 3시 ~ 4시에 관객들이 집중적으로 입장하며 오후 5시부터는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 관객 분포현황 - 비피크타임

거평 MMC 대기공간의 비피크타임은 오전 1시경으로 입장하는 관객은 개인이 대부분이며 대기공간 내에 관리자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관객들은 concession 앞, 대기좌석, 엘리베이터 앞, 매표소 앞에 몇 명만 분포되어 있었고 표를 구입하며 concession을 이용하고 영화 상영전까지 대기좌석에 앉아있는 단순한 행동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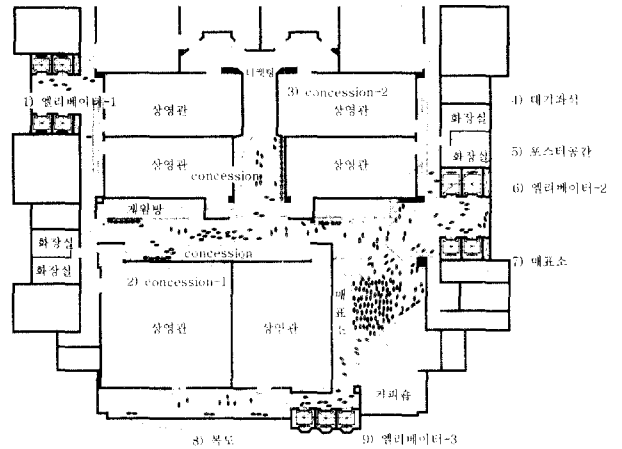
<그림 1> 거평 MMC 비피크타임 관객분포 - 오전 11시경

(2) 관객 분포현황 - 피크타임

거평 MMC 대기공간의 피크타임은 오후 4시경으로 오후 2

8)분 연구에서는 대상영화관의 시간대별(1시간단위) 관람객추이를 일정기간(2001.2.11~3.2)동안 파악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관객이 입장한 시간대를 피크타임으로 가장 적은 관객이 입장한 시간대를 비피크타임으로 설정 하였으며 이는 각 대상 영화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시 이후에 갑자기 증가한 관객들이 정체되어 있고 계속 입장하는 관객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다. 피크타임의 관객들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으며 대기좌석은 관객들이 이미 집중적으로



<그림 2> 거평MMC 피크타임 관객분포 - 오후 4시경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각의 엘리베이터 앞과 concession, 매표소 등 대기공간에 관객들이 집중되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엘리베이터-1의 관객들은 영화 관람 후 대기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퇴장하는 퇴장객이며 엘리베이터-2와 엘리베이터-3에는 입장객과 퇴장객이 충돌하는 영화관의 입·출구로 동시에 관객들이 대규모로 집중되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며 대기좌석은 관객들이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대기공간의 형태가 복도형이며 이로 인하여 퇴장객들과 대기공간 내에 대기중인 관객들이 서로 충돌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매표소 앞은 관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으로 <그림2>에서 보여지듯 커피숍의 사선형태로 인하여 한쪽부분이 좁아 표를 구입하기 위한 관객들의 대기줄로 인하여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화재시 관객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파악된다.

3.2. CGV 강변 11 관객분포

거평 MMC 대기공간의 관객혼잡도와 마찬가지로 주말과 평일보다는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후 1시경부터 대기공간 내에 관객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오후 4시경에 관객분포가 최대를 이루고 오후 5시경부터 관객들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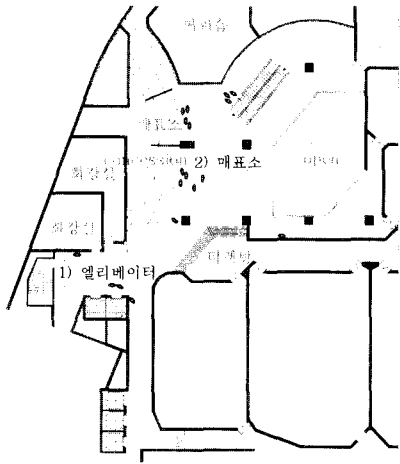


<사진 3> CGV 강변 대기공간

(1) 관객 분포현황 - 비피크타임

CGV 강변 11의 비피크타임은 오전 11시경으로 매표소, 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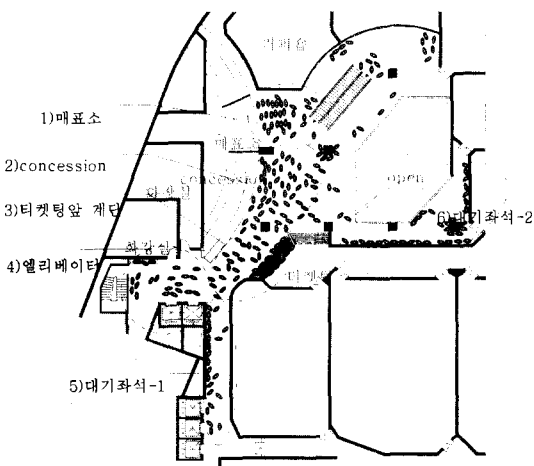
리베이터, concession 앞에 관객이 몇 명만 분포되어 있으며 개인관객이 대부분이므로 행동범위가 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객들 간의 접촉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강변 CGV 11 비피크타임 관객분포 - 오전 11시경

(2) 관객 분포현황 - 피크타임

CGV 강변 11의 피크타임은 오후 4시경이며 대기공간에 관객이 모두 분포되어 있어 통행시 서로 부딪치며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대기좌석에 관객들이 분포되며 관객들은 대기할 장소를 찾게되고 티켓팅 앞 계단까지 관객들이 집중된다. 티켓팅 앞 부분은 관객들의 주동선으로 이동이 가장 많은 부분이며 또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움직임조차 힘든 상황이다. 엘리베이터 앞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이용객, 퇴장객, 입장객들의 집중으로 동선의 중복과 관객들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림 4> CGV 강변 11 피크타임 관객분포 - 오후 4시경

3.3.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관객분포

메가박스 씨네플렉스는 오후 1시경부터 대기공간이 혼잡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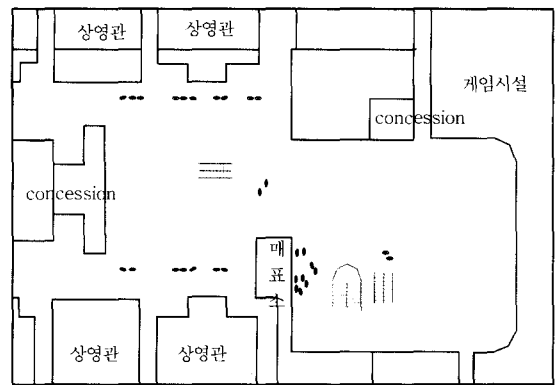
지기 시작하며 오후 2시경 이후로 관객이 대규모로 집중되어 오후 3시경부터 5시경까지 가장 많은 관객이 집중되고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진 4>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대기공간

(1) 관객 분포현황-비피크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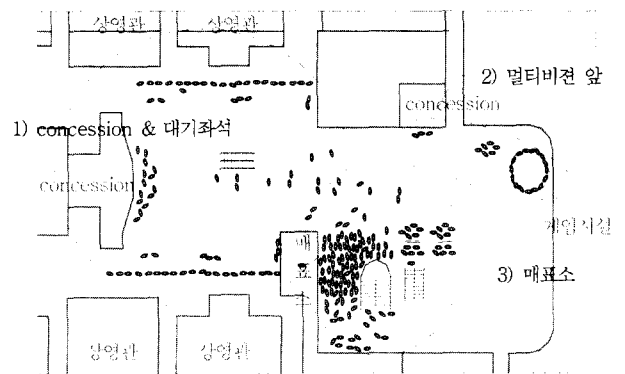
비피크타임은 다른 영화관과 별 차이 없이 오전 11시경이다. 관객은 가장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바로 내려오면 영화홍보자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집중되며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5>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비피크타임 관객분포 - 오전 11시경

(2) 관객 분포현황 - 피크타임

메가박스 씨네플렉스의 피크타임은 다른 영화관과 같이 오후 4시경으로 대표소 앞, concession, 영화홍보자료 앞, 대기좌석, 멀티비전 앞에 가장 많이 관객이 분포되어 있다. 분석대상 영화관 중 메가박스 씨네플렉스는 대기공간이 room형으로 관



<그림 6>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피크타임 관객분포 - 오후 4시경

객들이 대규모로 집중되어도 대기중인 관객과 이동객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멀티비전 앞에 원형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좌석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객들은 원형 무대를 휴

게시설로 이용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메가박스 씨네플렉스는 입·퇴장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 퇴장객과 입장객들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피크타임에도 대기공간이 혼잡하지 않았다.

4. 대기공간 내의 관객경로 분석

4.1. 거평 MMC 관객동선로

거평 MMC는 상영관의 입·출구 분리로 입·퇴장 동선은 중복되지 않게 평면상 계획되었다. 하지만 영화관의 입·출구가 동일하고 관객이 퇴장시 대기공간 내에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객과 퇴장객의 충돌이 발생한다. 거평 MMC의 대기공간은 대기장소의 역할보다는 복도 역할이 주를 이루게 됨으로 대기공간이 동선로가 되어 혼잡할 수 밖에 없다.

(1) 대기공간 관객 입장동선

거평 MMC는 건물 10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관객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다. 영화관에 도착하여 먼저 매표소를 이용하는 관객과 포스터공간에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관객 두 경우로 나뉜다. 다음은 대기좌석 또는 concession을 이용하며 관객은 대기공간 내에 공유한 여러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동선로를 형성하게 된다.

<표 2> 거평 MMC 대기공간 관객 입장동선

1	엘리베이터 →	매표소 → 포스터공간 → 대기좌석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2	엘리베이터 →	포스터공간 → 매표소 → 화장실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3	엘리베이터 →	포스터공간 → 매표소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4	엘리베이터 →	매표소 → 대기좌석 → concession →	티켓팅 → 상영관
5	엘리베이터 →	매표소 →	티켓팅 → 상영관

(2) 대기공간 관객 퇴장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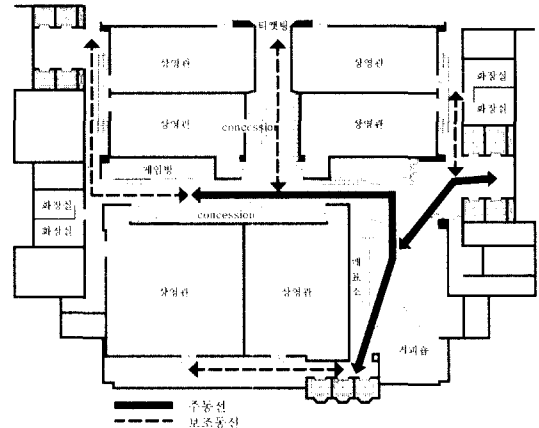
거평 MMC는 상영관의 입·퇴장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퇴장시 상영관의 출구로 나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영화관을 퇴장하면 퇴장객과 입장객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 관객들은 영화 관람후 대부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며 거평 MMC는 대기공간 내에 화장실이 위치하여 퇴장객들의 대기공간 진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관객들도 영화관에 처음 입장할 때 이용했던 엘리베이터를 다시 퇴장시 이용하게 되어 관객들이 대기공간에 재진입을 하게 되고 동선의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표 3> 거평 MMC 대기공간 관객 퇴장동선

1	상영관 →	대기공간 → 화장실 →	엘리베이터
2	상영관 →	대기공간 →	엘리베이터
3	상영관 →		엘리베이터

(3) 대기공간 관객 주 동선로

거평 MMC는 퇴장객이 대기공간에 재진입이 가능하며 입·퇴장 동선의 중복이 발생한다. 주 이동 동선로는 엘리베이터, 매표소, concession으로 연결된 공간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매표소로 향하는 동선은 강제동선으로 관객의 주동선로가 되며 매표소에서 concession으로 연결된 공간은 입·퇴장객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로 주동선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7> 거평 MMC 대기공간 관객 주동선로

4.2. CGV 강변 11 관객동선로

(1) 대기공간 관객 입장동선

CGV 강변 11은 테크노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관객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고 9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9층에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다. 영화관에 도착하여 관객들의 대부분은 매표소를 먼저 이용하게 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장한 관객은 concession을 지나서 매표소를 이용한 후 다시 concession을 이용하게 된다. 모든 관객의 입장동선은 매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4> 강변 CGV 11 대기공간 관객 입장동선

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매표소 → 대기좌석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2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매표소 → 화장실 → 계입방 → concession →	티켓팅 → 상영관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매표소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4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매표소 → 대기좌석 → concession →	티켓팅 → 상영관
5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매표소 →	티켓팅 → 상영관

(2) 대기공간 관객 퇴장동선

CGV 강변 11은 퇴장시 다시 대기공간 내에 진입하게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앞에 화장실이 위치하여 퇴장객들의 엘리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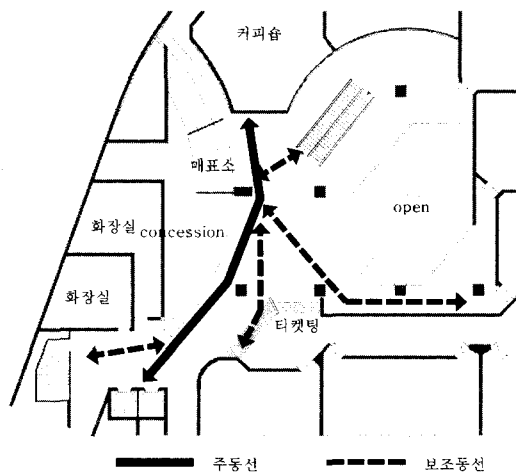
이터와 화장실의 이용으로 인하여 입장객과 퇴장객의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표 5> 강변 CGV 11 대기공간 관객 퇴장동선

1	상영관 → 대기공간 → 화장실 → 엘리베이터
2	상영관 → 대기공간 → 화장실 → 대기공간 → 에스컬레이터
3	상영관 → 대기공간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3) 대기공간 관객 주 동선로

CGV 강변 11은 티켓팅이 11개의 상영관 앞에서 이루어져 대기공간 내에서 관객들의 자율적인 동선을 형성하게 된다. 상영관의 입·퇴장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나 영화관의 입·퇴장 영역의 동일하여 퇴장시 관객들은 대기공간 내에 다시 진입을



<그림 8> CGV 강변 11 대기공간 관객 주동선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concession 앞이 모든 관객의 동선로가 되며 동선의 중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매표소까지 주동선로가 형성되고 매표소를 중심으로 대기 좌석, 화장실, concession으로 향하는 길이 관객들의 주동선로가 된다. CGV 강변 11은 대기공간 내에서 동선의 흐름이 순환적이다.

4.3.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관객동선로

(1) 대기공간 관객 입장동선

메가박스 씨네플렉스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대기공간 내에 진입 후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고 대기좌석과 concession이 위치한 공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동선로를 형성하게 된다. 대기공간에 진입하여 게임시설 앞에 마련된 무대공간으로 관객의 동선이 발생한다. concession은 대기공간의 깊숙한 정면에 배치되어 있고 대기좌석은 concession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어 매표소에서 concession으로 자연스럽게 동선이 유도된다.

<표 6>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대기공간 관객 입장동선

1	에스컬레이터/계단 → 매표소 → 대기좌석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2	에스컬레이터/계단 → 게임시설 → 매표소 → concession → 티켓팅 → 상영관
3	에스컬레이터/계단 → 매표소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4	에스컬레이터/계단 → 매표소 → 대기좌석 → concession → 티켓팅 → 상영관
5	에스컬레이터/계단 → 매표소 → 티켓팅 → 상영관
6	에스컬레이터/계단 → 게임시설 앞 → 매표소 → concession → 대기좌석 → 티켓팅 → 상영관

(2) 대기공간 관객 퇴장동선

메가박스 씨네플렉스의 퇴장동선은 단순하다. 상영관 앞에서 바로 영화관 외부 코엑스 몰로 퇴장하게 되어 있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동선체계지만 관객은 낯선 외부에 당황을 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아 헤매게 된다. 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관객들한테 불편을 준다. 퇴장로를 관객이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퇴장로 부분에 화장실을 배치하면 가장 바람직한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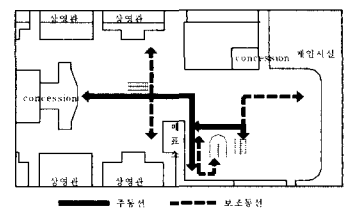
<표 7>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대기공간 관객 퇴장동선

1	상영관 → 영화관 외부
---	--------------

(3) 대기공간 관객 주 동선로

메가박스 씨네플렉스는 입·퇴장 영역의 확실한 분리로 퇴장객들이 다시 대기공간 내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대기공간 내에 진입하여 매표소로 향하는 공간과 매표소에서 concession으로 향하는 공간에 관객의 동선로가 형성된다. 대기공간이 다른 영화관에 비하여 넓기 때문에 동선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한 동선로를 형성한다.

상영관에서 바로 영화관 외부 코엑스 몰로 퇴장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가장 바람직한 동선체계라 할 수 있으나 관객은 낯선 외부에 당황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아 헤매게 된다. 퇴장로를 관객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고 퇴장로 부분에 화장실을 배치하면 바람직한 영화관 공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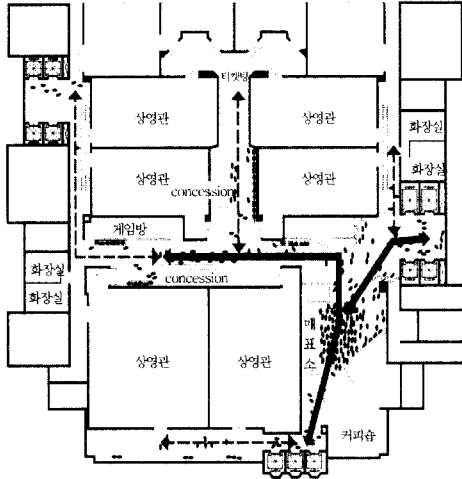
<그림 9>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대기공간 관객 주동선로

4.4. 대기공간 관객분포와 경로의 상관관계

(1) 거평 MMC

거평 MMC는 관객의 분포도와 동선로가 거의 일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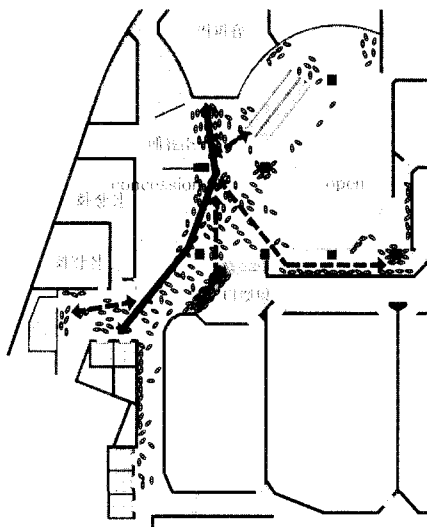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관객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장소에 관객들의 이동이 많다는 의미로 관객들의 통행 불편과 대기공간이 혼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평 MMC는 대기공간 형태가 복도형이며 매표소와 concession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바 관객들이 분포되어 있는 장소에 관객들의 통행로가 되므로 혼잡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림 10> 거평 MMC 대기공간 관객 사용현황

(2) CGV 강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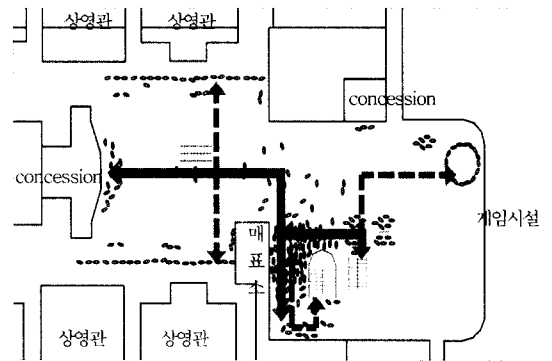
CGV 강변 11은 관객의 분포도와 주동선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concession 앞은 이용객들의 대기줄과 매표를 위한 관객의 동선과 퇴장객들의 동선이 충돌하여 매우 혼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영화관의 입·퇴장 동선 분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동선의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concession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11> CGV 강변 11 대기공간 관객 사용현황

(3)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매표소 부분은 관객의 분포도와 주동선로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oncession 부분은 대기공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객의 분포도와 주동선로가 일치하지 않아 그리 혼잡하지 않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른 영화관에 비하여 규모도 크지만 시설들의 공간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는 피크타임에도 관객들간의 충돌이 덜 발생하여 입장객 수가 많아도 다른 영화관에 비하여 혼잡함을 덜 느끼게 된다. 확실한 입·퇴장 공간의 동선 분리와 티켓팅을 위한 매표소, concession, 오락·휴게시설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면 동선의 중복과 혼잡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된다.



<그림 12>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대기공간 관객 사용현황

5. 종합고찰 및 결론

이상과 같은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여러 개의 상영관에 하나의 대기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영화관 계획 시 다음과 같은 공간적 요건의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영화관내 입·퇴장공간을 하나의 영역에서 해결할 경우 입장객들에 의한 대기공간 자체의 혼잡은 물론이고 영화관람 후 퇴장하는 관객과의 조우로 병목현상이 극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영화관 입·퇴장 영역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기공간 내에 분포된 관객과 통행하는 관객의 동선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대기공간의 형태를 복도형이 아닌 독립적인 ROOM 형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매표소와 concession 시설 계획 시 매표소는 영화관의 입장영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concession은 대기공간의 가장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대기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관객들과 통행하는 관객과의 동선상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혼잡함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넷째, 다수의 상영관을 공유하고 있는 영화관은 각각의 상영

관 영화상영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동시 입·퇴장을 가급적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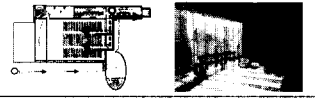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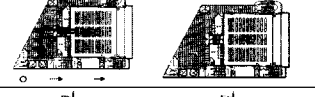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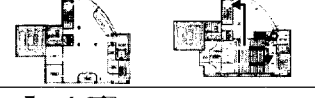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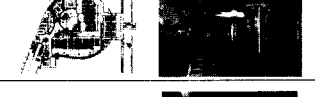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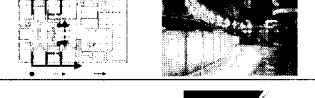

다섯째, 영화상영 전까지 대기 공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예를 들어 인터넷 방, 게임 룸, 탁아시설, 음악 판매점 등)을 공유시키는 것이 좋다. 이는 대기공간내의 관객을 분산시킬 수도 있으며 대기시간이 길어 질 경우 관객의 지루함을 해결해 주는 동시에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안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복합영화관 대기공간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는 그 분석대상의 범위가 세 개의 영화관 사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복합영화관의 대기공간 현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기공간 내에 관객들이 한번에 대규모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관객분포와 경로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복합영화관이 발전하려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향후, 복합 영화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영화관 발전에 초석이 되는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태은·유길준, 한국현대 공연장의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2000. 10.
2. 김선영, 공연문화의 복합기능,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 12.
3. 이형석, 1990년대 이후의 국내 멀티플렉스영화관의 현황 및 건축공간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0.
4. 최봉기, 우리나라의 現代的 複合 映畫館 計劃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98.
5. 이상임, 복합영화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6. 이준수, 한국의 영화관 실태와 영화배급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6.
7. 김정계, 복합영화관의 로비공간 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2.
8. 小用利和・勝又英明, 劇場・ホールのロビー・ホワイエにおける公演時以外の利用に関する調査研究, 일본건축학회계획논문집, 2001. 1.
9. 岩下將務, 遊び環境における障害児と健常児居合あす場面の考察, 일본건축학회계획논문집, 2001. 2.

<접수 : 2001. 10. 31>

복합영화관	연면적	상영관수	입·퇴장공간 / 대기공간
명보 프라자 (개관:1994)	6,076㎡	5개관	
키네마 (개관:1997)	6,478.2㎡	2개관	
키노 (개관:1999)	4,703㎡	5개관	
씨네플러스 (개관:1998)	9,032㎡	3개관	
씨네코아 (개관:1997)	7,646.5㎡	5개관	
씨티극장 (개관:1995)	6,661.4㎡	4개관	
씨네월드 (개관:1996)	9,974.2㎡	8개관	
주공공이 (개관:2000)	6,706.9㎡	4개관	
CGV 인천 14 (개관:1999)	4,447㎡	14개관	
CGV 강변 11 (개관:1998)	5,752㎡	11개관	
메가박스 씨네플러스 (개관:2000)	17,954㎡	16개관	
거평 MMC (개관:2000)	3,960㎡	10개관	
센트럴 6 씨네마 (개관:2000)	.	6개관	